

방사선보건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세계방사선비상진료네트워크(REMPAN)의 연락기구(Liaison Institute)로 지정되었다.

REMPAN은 방사선 사고 시, 각국의 선량평가, 의료 등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1988년 조직된

것으로, 현재 미국, 러시아 등 17개국에 총 24개 센터가 지정되어 있다.

이로써, 세계 우수 기관들로부터의 방사선 응급의료에 관한 최신 정보의 습득 및 의견교환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원자력 및 RI 동정

과학기술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부에서 2001년 4월부터 2년 반 동안 아시아·태평양지역협력 사업책임자로 근무한 바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소 김경표 책임연구원(44세)이 IAEA 사무총장이 수여하는 특별공로상(Merit Award)을 수상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수상 배경은 재임 기간중 34개의 베타 동위원소 신물질 개발, 방사선조사식품의 국제교역 증진, 가속의 인공수정 향상기법 개발, 한·인니·IAEA 해수담수화용 중소형원자로 타당성 조사 사업 양해각서 체결 등의 성과에 기여한 공로이다.

IAEA 특별공로상은 사무총장이 담당 업무에

탁월한 공적을 거둔 직원에게 UN 직원으로서의 기여를 치하하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우수직원 인증서와 함께 시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김경표 씨는 재직 당시 본인이 책임을 맡았던 아·태지역협력사업의 진흥을 위해 시상금 전액을 기부함으로써 또 한번 수상의 의미를 뜻 깊게 하였다.

현재 IAEA 사무국 직원은 2,200여명이며, 이중 한국 출신 원자력 전문가는 30명으로 이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 원자력전문가의 IAEA 및 해외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제주도 남제주군 송악산 동쪽 상모리 바닷가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한 5만년 전 구석기 시대 인류, 동물 발자국 화석의 추정연대를 최근 다시 정밀조사하기로 했다. 발표 뒤 경상대 손영관 교수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기화 박사 등이 발자국 화석의 생성시기가 4000여 년 전으로 추정된다는 이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손 교수 등은 화석 발견장소의 응회암(화산재

가 쌓여 이뤄진 암석) 지층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송악산 서쪽 기슭에서 나온 전복껍질 조각을 탄소동위원소 연대측정법으로 분석한 결과 시기가 3900년 전(±100년), 4090년 전(±90년)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발견자인 김정률 한국 교원대 교수는 포타슘-아르곤 연대측정법을 써서 송악산 부근 화산재 퇴적층의 연대 추정치를 조사한 자연유산보존협회의

2002년 지질보고서 기록을 바탕으로 5만년 전이란 추정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학계 일부에서는 “포타슘-아르곤 측정법은 훨씬 오래된 암석에 주로 쓰며, 화석발견 장소가 아닌 부근 지역의 시

료측정치란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화재청쪽은 “김 교수와 손 교수가 제시한 연대측정법과 시료 성격, 채취 장소 등이 각기 다른 만큼 합동조사단을 꾸려 연대를 가릴 방침”이

## 태준제약

태준제약(회장 이태영)은 최근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에 MRI·CT 조영제 등을 생산하는 제2공장을 착공했다.

총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지상 4층, 연면적 3,500평(대지 1만평) 규모로 오는 12월 완공 예정이다. 선진시장 진출을 겨냥해 미국의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 요구하는 첨단 생산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태준제약은 지난해 국내업계 최초로 북미방사선학회(RSNA)에 참가해 자체 개발한 36개 제품을 전시하는 등 해

## 외시장 개척에 본격 나섰다.

외시장 개척에 본격 나섰다.

이 회사는 1978년 설립된 이래 자체 개발한 MRI·CT 조영제 등 진단방사선 관련 제품과 인공누액 ‘히아레인’ 등 안약제품, 소화기계 의약품을 생산·판매해 왔다.

조영제는 X선 검사 때 특정 장기(臟器)나 조직에 X선 투과도가 다른 물질을 주입, 그 주변의 장기·조직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게 함으로써 병의 발견 및 파급범위를 알 수 있게 도와준다

## 해외 동정

러시아와 미국의 연구진이 덴텔레예프 주기율표의 113번째 원소와 115번째 원소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초중(superheavy)》 원소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 두브네의 핵센터와 캘리포니아의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의 공동 연구진이 발견한 이 원소들은 입자 가속기에서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면 붕괴하기 전까지 1초 미만의 시간 동안 존재했다.

연구진은 실험에는 아메리슘 표적과 칼슘의 희귀 동위원소를 이용했다. 115번 원소는 이 원소들의 핵의 상호 작용으로 만들어졌다. 115번 원소는 Ununpentium이라고 명명됐으며, 이 원소가 붕괴할 때 113번 원소가 형성됐다.

Ununtrium으로 알려진 113번 원소의 원자들은 1초 이상 존재했다.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초중 원소들이 “안정화 섬”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수소에서 우라늄에 이르기까지 모든 원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루고 있다. 이 원소들은 지구 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들의 수명은 지구의 나이보다 더 오래 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라늄보다 더 무거운 모든 원소들은 핵융합 과정에서 형성됐으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인공적인 방법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으며 우라늄 원소 이후의 핵의 수명도 급격하게 떨어진다. 여러 가설 중의 하나에 따르면, 초중 원소들은 초신